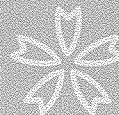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와의 인연 - 새 회장직을 맡으면서

醫師이며 信者인가, 信者이며 醫師인가?



맹 광 호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 회장



지난 2004년 11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대만 보인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티엔추기경기념병원(Cardinal Tien Hospital)에서 열린 제 13차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 총회와 학술대회 기간 중에 내가 4년 임기의 새 회장에 선출이 되었다.

부회장은 이번 대회를 주관한 전 대만보인대학교 의과대학학장 겸 티엔추기경기념병원 원장이던 Mary Ann Lou 의사수녀와 일본 가톨릭의사회 Buichi Ishijima 박사, Chong Khin Yam 말레이시아 가톨릭의사회장, 그리고 2008년도 제14차 대회를 유치한 홍콩 가톨릭의사회 Peter Au-Yeung 박사가 선출되었다. 한편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 사무총장과 재무는 회장국인 한국에서 회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대학 방사선과의 김범수 교수와 흉부외과의 조건현 교수에게 각각 수고를 부탁했다.

가톨릭의사로서 아시아 지역 가톨릭의사협회장을 맡는다는 것은 더없는 영광스런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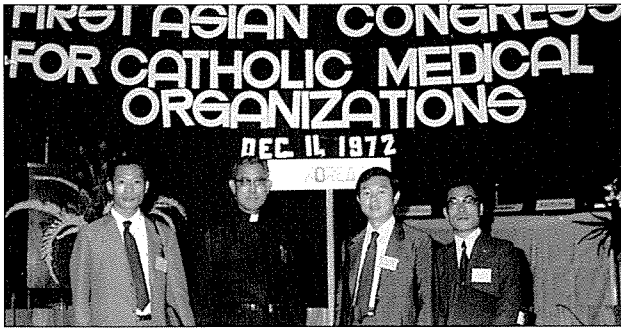
그러나 사실 이번에 나는 이 협회 회장직 수락을 극구 사양 했었다. 그것은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미 조규상 교수님과 박용휘 교수님께서 각각 1980년대와 90년대에 협회 회장직을 역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직 회장이 나오지 않은 아시아 다른 나라들에게 회장직을 양보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임 회장을 비롯해서 각국 현 회장들이 이번에 꼭 내가 회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도저히 거절을 하지 못하고 말았지만, 생각해 보면 이번에 내

가 이 협회 회장이 된 것은 어찌 보면 숙명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떤 형태로든지 나는 이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 모임과 끊을 수 없는 인연을 맺어 왔고 따라서 결국 회장직책까지 맡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내가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내가 우리 가톨릭의과대학 전임강사로 임명받게 되던 1972년의 일이다. 그해 여름 나는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노동기구(ILO)의 산업장 가족계획 펠로우십 연수회에 한 달간 참석을 한 일이 있는데 이 연수회를 마치고 귀국하는 도중 태국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 모임에 참석을 하고 계시던 유수철 당시 가톨릭중앙의료원 원장 신부님과 조규상 교수님 일행을 만날 겸 우연히 이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된 것이다. 이후로 나는 우연하게도 지금까지 매 4년마다 열리는 이 아시아가톨릭의사협회 모임을 단 한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그 동안 내가 여러 해 외국에 가 있는 동안에도 거짓말같이 이 모임이 있을 때면 국내에 들어와 있게 되어서 이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과 함께 참가를 해 왔던 것이다. 1972년 방콕대회 이후 1976년에 홍콩, 1980년에 서울, 1984년에 마닐라, 1988년에 나가사키, 1992년에 다시 방콕, 1996년에 쿠알라룸푸르 그리고 2000년에 싱가포르와 이번 2004년 대만까지 연거푸 아홉 번을 이 회의에 참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 모임을 계속해서 아홉 번이나 참석한 사람이 아시아에서 나 한사람밖에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아



시아 가톨릭의사협회와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본다. 특히 1972년 방콕 모임은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 모임으로는 사실상 첫 번째나 다름이 없는 모임이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더욱 의미가 있다. 기록상으로는 1962년에 열렸던 세계 가톨릭의사협회 모임에 참석했던 필리핀, 월남, 그리고 일본 가톨릭 의사 몇 명이 아시아 지역모임을 갖기로 하고 이후 4차례 소규모 모임을 가진 일이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일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 가톨릭의사들이 모인 것은 이때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찍은 사진에도 보면 이 방콕모임을 첫 번째 아시아 지역 가톨릭 의사단체 모임으로 표기를 해 놓고 있다(사진 참조). 게다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12년간 나는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 사무총장 직책을 맡았었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은 부회장직을 맡아 일을 해 온 경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협회에 대한 나의 애정 또한 남다른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사무총장직을 맡아 일을 하는 동안에는 협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아시아 각국 가톨릭의사회를 소개하는 기관 디렉토리(Directory)도 만들었고 매해 두 차례씩 뉴스레터도 만든 적이 있다. 이후 디렉토리는 물론 뉴스레터도 2000년에 한차례 나왔을 뿐 계속이 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지금까지 나는 수도 없이 많은 외국모임을 참여해 왔다. 이런 모임들 중에는 물론 내 전공과 관련한 분야 학회나 일반회의가 많지만 나의 경우 이보다 결코 적지 않은 모임이 가톨릭과 관련된 모임들이며 나는 이 일을 더없는 영광과 은총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이런 교회관련 모임이 항상 나에게 다른 모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감동과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나는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 모임 말고도 자연가족계획이나 교회

가정생활교육과 관련한 모임에 많이 참여를 했었다. 1973년 호주에서 있었던 4개월간의 병원행정 국제연수에 참가했을 때 당시 호주 멜번에 있던 자연가족계획방법 개발자 Dr. John Billings 내외를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당시 한국주교회의 가정사목담당주교이시던 춘천교구 박 도마(Stewart Thomas) 주교님과 한국병원협회 회장 겸 가톨릭중앙의료원 원장님이시던 김창렬 주교님을 모시고 한국가톨릭병원협회 안에 '한국행복한가정운동'을 만들어 자연가족계획을 보급하는데 앞장을 섰고 이로 인해 관련 모임의 아시아 지역 운영위원 자격으로 여러 번 이런 모임에 참석을 했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아시아 가톨릭대학연맹 운영위원직을 맡게 되면서 가톨릭 대학 관련 모임에도 거의 매년 참가를 해 왔던 것이다. 이런 인연으로 해서 나는 마더 데레사와도 홍콩에서 함께 며칠을 지낸 적이 있고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도 로마에서 두 번이나 개별 알현하는 행운도 얻었던 것이다.

결국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나는 1996년 아시아 가톨릭대학연맹회의를 서울에 유치해서 주관했고 2002년에는 세계가톨릭의사협회 모임도 한국에 유치해서 주관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금년 2005년 5월에는 세계가톨릭의과대학연맹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세계 각처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모든 가톨릭 관계모임이 다 그렇지만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 모임에 참석하는 일은 아주 특별한 피정에 참석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만큼 이 모임에 참석을 하면 많은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매일 진행되는 미사에서 깊은 영성을 지닌 신부님들로부터 가슴 뜨거운 강론을 듣기도 하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생활하는 신부님이나 수사님 그리고 수녀 의사 분들의 생활경험을 들으며 한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는 평신도 의사들의 얘기를 들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열리는 세계가톨릭의사협회 모임 같은 것은 가끔 유서 깊은 수도원 건물에서 열리기 때문에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아주 특별한 중세 수도원 생활 분위기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내가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 회장직을 맡은



일을 나는 아주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렇다고 이번 임기 동안 내가 회장으로서는 별난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톨릭교회는 2000년 역사가 말해 주듯 오랜 연륜과 전통이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속에 충실하게 묻히는 것 만으로도 한 몫을 하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다소 침체된 협회의 분위기를 다시 살리는 일은 몇 가지 해 볼 생각이다. 우선 다시 한번 각국 가톨릭의 사회의 활동과 규모를 소개하는 디렉토리를 만들 생각이고 뉴스레터도 1년에 한 차례씩은 발간하려고 하고 무엇보다 협회 차원에서 생명윤리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각국 가톨릭의사들에게 알리고 기난한 아시아 나라에 대한 의료봉사를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고 싶다. 그래서 지난번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되면서 나는 협회 안에 생명윤리위원회(AFCMA Bioethics Committee)와 의료봉사위원회(AFCMA Medical Mission Committee)를 만들기로 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두 의사에게 각각 위원장도 위촉을 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가톨릭의사회의 자원으로 협회 홈페이지도 만들기로 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의료봉사위원회는 이번 남아시아 지역 지진과 해일이 발생했을 때 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가톨릭의사들을 중심으로 의료봉사팀을 만들어 활발한 현지 활동을 했고 한국과 일본가톨릭의사협회는 각각 미화 3,000불과 5,000불씩을 모아 보내기도 했다. 생명윤리위원회도 이미 아시아 지역의 이름 있는 생명윤리학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에 나올 첫 번 뉴스레터와 이번에 만든 협회 홈페이지(www.afcma.blogspot.com)에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연재하기로 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수에넨스 추기경이라는 분이 있다. 아주 영성이 깊으신 교회 학자이신 이 분이 1960년대에 쓰신 <사랑과 자제, Love and Control>라는 유명한 책에 보면 '의사이며 신자인가, 신자이며 의사인가?' 라는 글이 있다. 결론만 말하자면 우리 가톨릭의사는 의사로서의 기능적 삶에 앞서 가톨릭신자로서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책이다. 그러자면 교회가 가톨릭의사를 위해서

만든 많은 인간생명과 보건의료 관련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는 아시아 지역 가톨릭의사들이 좀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가톨릭의사로서의 보람된 삶을 살도록 하기위해 만들어진 교회단체다. 앞으로 4년간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 회장 직책을 맡으면서 나는 우리 아시아 지역 가톨릭의사들이 교회가 우리 가톨릭의사들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생명의료 관련 가르침을 알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데 적으나마 도움을 주고 싶고 무엇보다 4년 뒤 홍콩에서 열릴 14차 회의가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모임이 되도록 주최국과 긴밀히 연락을 가지며 준비를 해 나갈 생각이다.

끝으로, 이번 한국가톨릭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그리고 간호협회와 약사회 등 가톨릭의료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한국가톨릭의료협회'를 창립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결국 의료 관련 일을 통해 치유자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본받아 병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자는 것이 이들 모든 단체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상 각자 독립적인 활동을 하면서 때때로 함께 만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의료 활동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익히는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형태의 모임은 아시아 다른 나라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가령 대만의 가톨릭의료협회는 이미 1990년대부터 모임을 함께 해 오고 있으며 지난번 대만에서의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 모임에도 이들 국내 다른 가톨릭 의료단체가 함께 참여를 했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대개는 각 단체의 회원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도 이런 공동 모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가톨릭의료 관련 단체들의 모임은 교회 의료사업과 관련 행사를 수행하는데 더 없이 효율적이 될 것이다.

1년에 한번쯤은 대규모 학술대회와 함께 감동이 있는 아주 특별한 모임을 가짐으로써 이 모임에 참가하는 가톨릭 의료 관련 단체 회원들이 모두 충만한 은혜도 받게 되면 하는 개인적 바램도 있다. 🐦

